정현, 오늘 세계 16위 몽피스도 넘을까

"세계랭킹 16위 나와!"

한국 테니스의 희망 정현(78위·삼성증권 후원·사진)이 남자프로테니스(ATP) 투어 BMW 오픈(총상금 48만 2060유로) 2회전에서 톱 시드인 가엘 몽피스(16위·프랑스)와 8강을 다툰다. 올해 31살의 몽피스는 지난 해 11월 세계 랭킹 6위에 올랐던 선수이며 투어 대회 단식에서 통산 6차례 우승한 강호다.

정현이 지금까지 꺾은 선수 가운데 세계 랭킹이 가장 높은 선수는 지난주 바르셀로나오픈 단식 3회전에서 만났던 당시 세계랭킹 21위인 알렉산더 즈베레프(독일)다. 바르셀로나 오픈에서 정현은 즈베레프를 누르고 8강에 올라 우승자인 라파엘 나달(스페인)과 선전을 펼쳐 강한 인상을 남겼다. 그 결과 정현은 ATP 투어 세계 랭킹이 94위에서 무려 16계단을 뛰어 78위까지 올라섰다.

정현의 상승세는 이어서 독일 뮌헨에서 열리고 있는 BMW 오픈에도 이어지고 있다. 3일(한국시간) 독일 뮌헨에서 열린 대회 이틀째 단식 1회전에서 막시밀리안 마테레프(128위·독일)에게 2-1(7-6<10> 4-6 6-3)로 승리하며 2회전에 안착했다. 1세트를 듀스 끝에 가져온 정현은 2세트에서 다섯 번째 서브 게임을 놓치며 세트를 내주는 위기를 맞기도 했지만 3세트에서 초반부터 강하게 밀어붙여 귀중한 승리를 챙겼다. 이날 정현은 서브에이스 4개를 기록했고 ATP시리즈에서 총 15승 7패를 기록 중이다.

2회전에서 정현은 4일 오후 5시(한국시간)에 1회전을 부전승으로 통과한 몽피스와 8강을 다툰다. 몽피스는 올해들어 하락세이지만 지난 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약 5개월 동안 톱10'을 유지했던 정상급 선수이며 이번 대회에서도 1번 시드를 받았다. 두 선수가 맞붙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정현이 뒤지지만 최근의 상승세라면 해볼 만하다는 전망이다. 세계랭킹이 78위까지 뛰어오른 것도 정현에게는 고무적이다. 유인근 선임기자

이미래 3쿠션 세계선수권 2년연속 준우승

한국 여자 3쿠션의 미래로 불리는 이미래(22·사진)가 2017 세계여자3쿠션선수권대회에서 값진 준우승을 차지했다.

세계랭킹 3위인 이미래는 15일(한국시간) 벨기에 즈어젤에서 끝난 대회 결승전에서 일본의 강자 오리에 히다(4위)에게 19-30으로 졌다. 하지만 지난해 처음으로 세계선수권에 나서 준우승을 차지한 이미래는 2회 연속으로 결승 무대를 밟으면서 세계 정상급 선수임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챔피언에 오른 히다는 2006, 2008년 우승 이후 9년 만에 다시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면서 관록의 힘을 뽐냈다.

쾌조의 오름세를 탔기에 너무나 아쉬웠다. 이번 대회는 아시아와 유럽, 아메리카 대륙에서 선발된 16명의 선수가 4명씩 4개 조로 나뉘어 25점 풀리그 예선을 치른 뒤 각조 상위 2명이 8강에 오르는 방식이다. 이미래는 조별리그 C조 2위로 8강에 진출, 일본의 나미코 하야시를 누르고 4강에 올랐다. 4강에선 '디펜딩 챔프'이자 세계 1위인 테레세 크롬펜하우어(네덜란드)를 꺾은 덴마크의 마리안느 모텐슨(8위)을 상대했으나 30-8 대승을 거뒀다.

하지만 중압감이 큰 결승전에서는 샷 실수가 연달아 나왔다. 히다를 맞아 19이닝까지 13-15로 근소하게 뒤졌다. 그러나 후반 들어 긴장한 탓인지 이전까지 보이지 않던 실수가 나왔다. 히다가 후반 17이닝동안 13점을 달아나는 동안 이미래는 5점을 쌓는데 그쳤다. 결국 히다가 28-18로 앞선 37이닝에 30점 고지를 밟았다. 후구를 잡은 이미래는 1점을 얻는 데 그치면서 우승을 내줬다.

하지만 이미래는 이제 만 22세에 불과하다. 2년 연속 쓴 보약을 마셨으나 1년 전 세계랭킹이 24위에 불과했던 그가 어느덧 톱5에 들면서 강자로 발돋움했다. 매번 승부처에서 샷이 흔들렸으나 더 많은 국제 경험을 통해 극복해야 한다. 남자 3쿠션은 지난해 만 24세 김행직이 세계선수권에서 준우승을 하고, 김재근 최성원으로 구성된 남자 대표팀이 지난 3월 세계팀선수권에서 사상 첫 우승을 차지하는 등 제2 전성기를 누리고 있다. 이미래는 주춤하던 여자 3쿠션계에 대표 주자로 우뚝서면서 또다른 중흥기를 예고하고 있다. 김용일기자 kyi0486@sportsseoul.com

오늘의 경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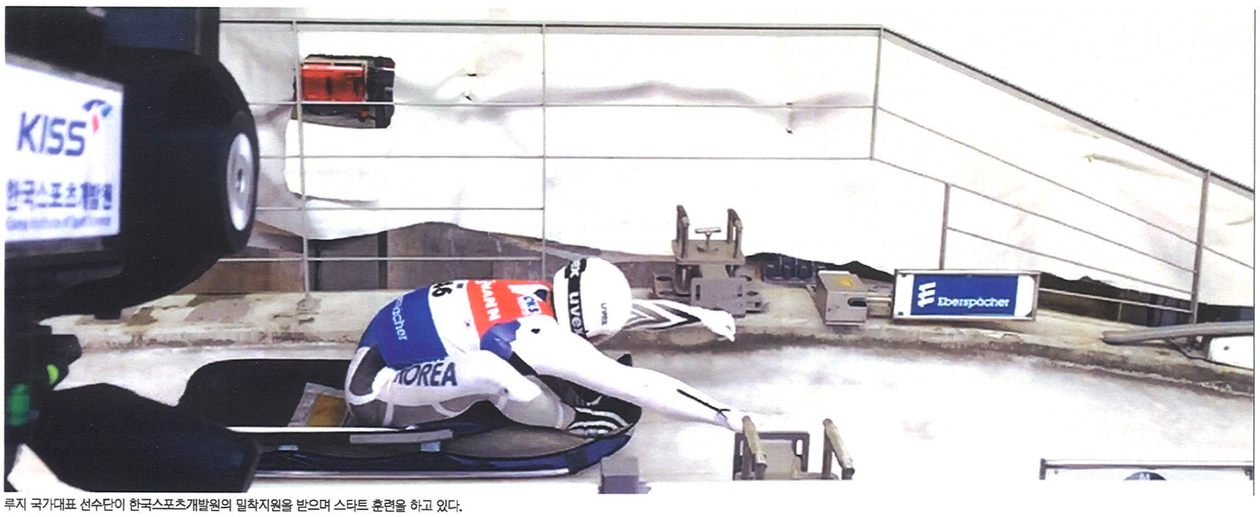
【테니스】●전국주니어선수권대회(순창 공설 테니스코트) ●부산오픈 국제남자챌린저대회(부산 스포원파크) ●인천 국제여자챌린저대회(인천 열우물경기장)

【양궁】●제51회 전국남여종별선수권(오전 9시·청주 김수녕양궁장)

【근대5종】●회장배 전국대회(오후 2시·문경 근대5종복합경기장 등)

【탁구】●전국남녀종별선수권(오전 9시·충북 단양국민체육센터)

【사이클】●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배 전국대회(오전 9시·영주경륜훈련원)



루지 국가대표 선수단이 한국스포츠개발원의 밀착지원을 받으며 스타트 훈련을 하고 있다.

공단 스포츠과학 '평창 메달' 맞춤형 지원

루지 등 개최국 이점 최대한 활용
초고속 촬영 기술 동원 정밀 분석
실시간으로 선수-지도자에게 전달
"경기력 눈에 띄게 향상…성적 기대"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이 앞으로 9개월 밖에 남지 않았다. 개최국의 이점을 감안해 20개 이상 메달을 획득하여 종합4위를 달성한다는 목표로 태극전사들과 대회관계자들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이번 올림픽은 국제동계스포츠 이벤트를 넘어 참가국 과학기술의 치열한 격전지가 될 전망이다. 스포츠과학을 기초로 엘리트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연구와 밀착지원으로 국가대표 선수들의 든든한 후원자 역할을 하고 있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직무대행 김성호)은 특히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더욱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며 다각도로 메달획득을 위한 스포츠과학 지원에 힘쓰고 있다. 지난 리우 올림픽부터 대표팀 경기력 향상을 위해 심리,기술,체력,영상분석 전문 인력을 총원해 현장 밀착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올림픽을 준비하는 선수와 지도자들과 더 많이 소통하며 현장의 요구에 맞춘 스포츠과학을 지원하는 것이다.

스포츠개발원 연구원들이 국가대표를 대상으로 루지스포츠 과학교실을 통해 경기력 향상을 위한 이론교육을 하고 있다.

이번 동계올림픽에서는 개최국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루지 봅슬레이 스켈레톤 등이 메달 유망 종목으로 손꼽힌다. 이 종목들은 경기장 코스, 얼음의 성질 등 외부환경이 경기결과에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선수들은 실제 경기장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한다.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은 다소 유리한 측면이 있다.

루지경기는 썰매타기에서 스포츠로 발전된 종목으로 썰매에 누워 트랙을 질주한다. 평균 시속 120~160㎞의 엄청난 속도로 1000분의 1초를 다투는 다이내미한 종목이다. 봅슬레이 스켈레톤 종목에 비해 잘 알려지지 않아 생소한 종목이지만 선수들에 대한 과학적 지원 여하에 따라 메달 획득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루지는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경기이기 때문에 처음 스타트 구간부터 기록단축이 요구된다. 우리 루지대표팀도 스타트 구간 기록향상을 위해 체육진흥공단 한국스포츠개발원과 손을 잡았다.

루지종목을 담당하고 있는 문영진 책임연구위원과 전담팀은 초고속 촬영기술을 적용해 스타트 구간을 세분화하고 선수별 기술및 동작에 대한 정밀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훈련및 대회에서 촬영한 영상과 분석결과는 실시간으로 선수와 지도자에게 전달돼 즉각적인 피드백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스포츠과학을 기반으로 선수들의 장단점을 면밀하게 파악해 개인별 체력향상과 기술향상 목표를 설정하여 훈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공단의 스포츠과학 지원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루지 종목은 그 동안 변변한 훈련장소가 없어 아스팔트에서 바퀴달린 썰매를 타거나 이미지 트레이닝을 했다. 이에 스포츠과학실 연구위원들은 정보통신기술과 스포츠과학 융합을 통해 VR(Virtual Reality,가상현실) 시뮬레이션 훈련 장비를 개발하는데 성공했다. 이 장비를 이용해 대표선수들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실내에서도 썰매를 타며 실전 주행감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런 노력들이 스포츠과학실과 대표선수팀간 신뢰와 믿음으로 이어져 선수들의 경기력이 눈에 띄게 향상되고 있다. 공단의 전담팀 황승현 연구위원은 "한국 루지대표팀은 2018 평창올림픽 상위권 진입은 물론이고 스타트 구간에서 0.1초만 더 단축한다면 메달 획득을 기대할 수 있을 정도로 기록이 좋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유인근 선임기자 ink@sportsseoul.com

박태환, 쑨양과 경쟁 아직 안 끝났다

5~8일 아레나 프로 스윔시리즈
자유형 100·200·400·1500m 출전
7월 세계선수권 격돌 대비 모의고사

박태환(28·인천시청)과 쑨양(26·중국)의 경쟁이 재개된다.

아시아의 두 수영스타가 오는 7월 세계선수권을 앞두고 호흡을 가다듬고 있다. 먼저 물살을 가른 쑨양이 톱 클래스의 기록을 냈다. 이제 박태환의 차례다. 박태환은 오는 5일(한국시간)부터 8일까지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 조지아공대 수영장에서 열리는 '2017 아레나 프로 스윔시리즈 대회'에 출전, 자유형 100·200·400·1500m 등 4종목에 도전한다. 100m와 400m가 6일 벌어지고, 200m는 7일, 1500m는 8일 개최된다.

박태환이 실전을 치르기는 지난해 12월 캐나다 윈저에서 열린 제13회 국제수영연맹(FINA) 쇼트코스 세계선수권대회 이후 5개월 만이다. 길이 25m의 쇼트코스가 아닌 50m 롱코스 대회에 나서는 것은 4관왕을 차지했던 지난해 11월 제10회 아시아수영선수권대회(일본) 이후 6개월 만이다.

박태환은 오는 7월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열리는 2017 국제수영연맹(FINA) 세계선수권(롱코스)를 대비하기 위해 지난 2월 호주 시드니로 건너가 담금질을 해왔다. 이번 애틀랜타 대회는 박태환에게 훈련 성과를 점검하면서 세계대회 국가대표 자격을 갖추기 위한 성격도 갖고 있다. 대한체육회 관리단체인 대한수영연맹은 올해 국내 대회 일정을 뒤늦게 확정하는 바람에 선수들의 훈련에 차질이 빚어지자 부득이 선발대회에 참가할 수 없는 선수들이 다른 대회에서 수립한 기록을 선발기준 기록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박태환도 12~15일 경북 김천 실내수영장에서 치르는 국가대표 선발전에는 참가하는 대신 애틀랜타 대회에 출전하게 됐다.

박태환 뉴시스

FINA가 세계선수권 출전을 허용하는 A기준기록의 경우 남자부는 자유형 100m 48초93, 200m 1분47초73, 400m 3분48초15, 1500m 15분12초79다. 박태환의 실력을 볼 때 A기준기록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관건은 그가 올해 첫 대회에서 어떤 기록을 내는가다.

특히 그의 주종목인 자유형 200m와 400m 올해 세계 1위 기록을 맞수인 쑨양이 갖고 있어 박태환도 쑨양의 기록과 비교될 수밖에 없다. 지난해 8월 리우 올림픽에서 자유형 200m 금메달, 400m 은메달을 거머쥔 뒤 휴식을 취했던 쑨양은 지난달 중국선수권에서 자유형 200m 1분44초91, 400m는 3분42초16의 좋은 기록으로 우승하며 건재를 과시했다.

박태환은 자유형 200m에서 2012 런던올림픽 은메달을 딸 때 1분44초93을 기록한 이후 공식대회에서 1분44초대를 찍은 적이 없다. 자유형 400m에서도 런던 올림픽 은메달 당시 3분42초06 이후 3분42초대에 진입한 적이 없다.

박태환은 지난 2011년 상하이 세계선수권(자유형 400m 금메달) 이후 6년 만에 롱코스 세계선수권에 출격한다.

이를 앞두고 첫 리허설로 치르는 애틀랜타 대회에서 세계 정상급 선수들과의 페이스를 간접적으로 다퉈 볼 좋은 기회다. 김현기기자 silva@sportsseoul.com

배구협 대의원 7명 성명서 발표 "비대위 사퇴" "5개월 동안 사실상 식물협회… 서병문 회장 탄핵 절차상 부당"

대한민국배구협회 7명의 대의원들이 현재 협회 운영을 맡고 있는 비상대책위원회의 전원 사퇴와 서병문 회장 복귀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서 회장의 퇴진에 찬성했던 대의원들과 반대하는 대의원들 간의 첨예한 다툼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배구협회가 새로운 수장을 선출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파장이 예상된다.

배구협회 산하 시도배구협회 및 전국규모연맹체 회장 7명은 18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해 말 취임 2개월밖에 되지 않은 신임 집행부를 전원 해임한 결과 지금까지 5개월 동안 배구협회가 사실상 '식물협회'로 전락했다. 비대위 체제가 오래 지속되면서 생기는 심각한 사태와 일부 비대위원의 독단적인 행태를 방관할 수 없어 적극 행동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영석 경북배구협회장이 대표 낭독한 성명에는 서 회장을 비롯한 집행부의 사퇴에 찬성했던 김명옥 세종시배구협회장도 포함돼 있다. 배구협회 대의원단에는 17개 시도배구협회장과 6개 전국규모연맹체 회장이 참여한다. 지난해 12월 벌어진 서 회장의 '탄핵'사태 당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는 16명의 대의원이 모여 전원 찬성하면서 불신임안이 가결됐다.

성명을 낸 김영석 회장은 "서병문 회장과 개인적인 인연은 없다"고 오해의 가능성을 경계하면서 "협회가 비대위 체제로 오래 지속되면서 시도협회와 연계가 전혀 이뤄지지 않을 뿐더러 운영이 멈춘 상태다. 더 좋은 인사가 회장으로 선출될 것이라 장담할 수도 없다. 비대위가 됐든 서 회장이 됐든 협회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길 바라는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번 성명에 동참한 대의원들은 불신임안이 논의돼 가결됐던 지난해 임시대의원총회에 참석하지 않았던 인사들이다.

김 회장은 "탄핵을 논의하기 이전에 폭넓은 의견수렴과정이 있어야 했다. 몇몇 대의원들이 중심이 돼 탄핵을 결정해놓고는 참석해서 찬성표를 던지라는 행태를 보여 참석하지 않았다"면서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적법한 선거를 거쳐 당선된 회장에 대해 선거 과정에서 반대편에 섰던 인물들이 주도해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편가르기를 했다"면서 "서 회장이 법적인 다툼을 이어가면서 대한체육회도 항고심의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신임 회장 선출을 반대하고 있다. 문제 해결을 위해 비대위와 서 회장이 만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명을 발표한 대의원들은 서 회장이 취임직후 탄핵되면서 공과를 평가받을만한 일을 제대로 시작조차 해보지 못한 만큼 탄핵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1년이든 2년이든 지신의 공약을 지키기 위해 어떤 일을 하는지 살펴보고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에 대해 탄핵으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비대위 측이 "취임 이후로는 2개월이지만 당선 이후로는 5개월이다. 그 기간 협회의 돈을 쓰면서 회장으로서 공약을 지킨 것이 아무 것도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과 배치되는 만큼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은 "비대위에 속해있던 대의원 중 3명이 물러났다. 지금은 비대위 구성을 위한 인적 요건도 갖추지 못한 상태"라면서 "당시와 달리 몇몇 대의원들이 협회를 좌지우지 하는 모습을 보면서 서 회장 탄핵에 반대하는 의견이 많아졌다"고 말했다. 이정수기자 polaris@sportsseoul.com